

### 모악산 금산사

산은 수많은 생명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뿐이겠습니까. 미물도 산이 거두는 생명입니다. 사람도 산이 기르는 수많은 생명체들의 집합체 중에 하나입니다. 불교에서는 수많은 생명체를 중생이라고 합니다. 산의 크기에 따라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생명을 영위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생의 숫자는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산은 어머니와 같이 생명을 길러내는 무한한 자비의 터전입니다.

전주에는 모악산이 있고, 그 산에 금산사가 있습니다. 모악(母岳)이라는 말은 큰 산이라는 뜻으로 엄포, 큰모에서 유래합니다. 김제지역의 낮은 평야를 생각해보면 모악산이 큰 산으로써 신성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신성한 산 아래 금산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금산사의 시작은 삼국시대 백제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법왕 때인 599년에 창건되었으니 14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백제 왕실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사찰로서 창건 당시에는 작은 규모였습니다. 통일신라기 진표율사에 의해 대가람의 규모를 갖추면서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법상종의 근본도량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정유재란 때에 금강문을 빼고 모두 불타버리는 참혹함을 겪었습니다. 전쟁 후 조선 선조 34년부터 재건을 시작하여 오늘날의 모습을 이루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금산사의 큰 틀은 이때 조성된 것입니다.

금산사는 통일신라 말 진표율사에 의해 미륵불을 주불신앙으로 하는 법상종이 발원한 곳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백제는 무왕 때에 미륵사를 창건하는 등 미륵신앙을 주요 신앙으로 여겨온 전통이 있었습니다. 백제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신라기에는 백제의 미륵신앙이 오히려 중흥되었는데, 금산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한 사찰이라 할 것입니다. 이곳 금산사는 보은 법주사, 금강산에 있었다는 발원사와 더불어 한국 미륵 3사로 불리는데, 금산사는 미륵신앙의 으뜸 사찰입니다. 백제의 미륵신앙은 고려와 조선시대를 넘어 오늘날에도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금산사 미륵신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미륵전. 밖에서 볼 땐 3층이지만 내부는 통층으로 짜여져 있다.

## 진표율사 증정한 미륵신앙 으뜸 사찰

#### 미륵신앙의 절정, 미륵전

금산사의 미륵신앙은 3층의 미륵전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륵전은 금산사의 중심 전각으로 3층으로 이루어진 목조 건축물입니다. 내부는 통층으로 되어있어 흡사 1층인 것처럼 보기도 합니다. 외부에서 보는 각 층의 현판이 제각기 다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곳 미륵전을 참배하면서는 3이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미륵이 이 땅에 하생하여 3번의 설법으로 중생을 교화한다"는 미륵하생신앙에 근거하여 3존불 조성, 3층 건축물, 3회 설법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특징을 갖습니다.

금산사의 미륵전 1층 현판은 대자보전으로 대자비를 말하는데, 이는 미륵을 자씨(慈氏)보살이라고 한데서 연유합니다. 2층은 용화지회(龍華之會)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화는 미륵의 국토이름이며 회는 법을 설하는 곳을 말하는 것이니 곧 미륵법회도량을 의미합니다. 3층은 미륵전으로 미륵불이 계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더불어 미륵하생신앙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서 불상을 서 있는 모습(立佛)으로 만드는 특징을

지니기도 합니다. 입불상의 모습도 미륵하생신앙의 표현법으로 정형화되어 전해오고 있으니, 야외에 서있는 불상은 대부분이 미륵불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입상인 미륵불의 발아래 좌대는 돌에 연꽃문양을 새겨 만들거나 아예 만들지 않고 땅에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산사의 미륵불의 발아래는 철로 된 술모양이어서 아주 독특합니다. 책리지와 전설에 의하면, 미륵전이 있는 곳이 원래 연못이었는데 이를 메우기 위해 솥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솥 위에 돌로 된 연화대를 올리니 솥은 불(火)의 성격이라 돌(土)이 떠나려 가버려서 솥(火)의 성질을 감안해서 쇠(金)로 된 좌대를 올려서 안정성을 도모했다고 전해옵니다.

원래 솥은 하늘에 제사지내는 신성한 물건이었으며, 고대왕권의 상징으로써 중국에서는 구경(九鼎)을 둘러싼 쟁탈전이 있었을 정도로 신성물 또는 절대권력의 상징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미륵불은 다른 부처님과 달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곳 국토에 도래할 신성자입니다. 그렇기에 신권의 상징물인 솥을 조성해놓은 것도 단지 실용성만을 위한 우연

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법주사와 논산 개태사에 전해지는 큰 무쇠솥도 이러한 배경에 연유한다면 미륵신앙지에 반드시 조성하는 또 하나의 신성물일 것으로 짐작됩니다.

**미륵국토 염원하는 방등계단**  
금산사 경내의 송대(松臺)라고 불렸던 곳에 5층 석탑과 나란히 종모양의 부도가 있습니다. 꽤 넓은 2층 기단 위에 사각형의 돌이 놓이고 그 위에 탑과 부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처럼 사각형(방형)으로 되어 있는 곳에 사리탑이 있어 방등 적멸보궁으로 불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를 받는 곳으로 사용된 곳이어서 방등계단이라고 표현합니다. 미륵세상에 태어나기 위해 계를 받는 곳이므로 혹자는 이곳을 미륵상생신앙의 증거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륵님이 하생하는 이 국토에 태어나길 염원하는 의미로 계를 수지한다고 보면 미륵상생신앙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며, 오히려 미륵하생신앙으로 보는 것이 당시 진표율사의 미륵신앙의 맥과 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진표율사가 당시 행했던 미륵하생신앙의 실천수행법인 점찰참회계법이었음을 생각해본다면 이 계단은 미륵하생신앙의 실질적인 수행법을 전했던 곳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 미륵전과 방등계단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합니다. 전각 안에는 목판으로 된 인쇄용 경판이 있습니다. 진표율사가 미륵전을 중창할 당시 건립했다고 합니다. 지붕의 용마루 가운데 목탑 흔적인 북발과 보주가 남아있는 점이 특이합니다. 단층 목조 건축물에 북발과 보주를 남기는 경우는 아주 드문 예입니다. 영광 불갑사, 밀양 표충사에서 목탑 형식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장전 용마루 위에 보주 흔적**  
대장전(大藏殿)이란 불경을 봉안해 놓은 전각을



글·사진 한지유  
한국생활문화연구소 소장  
파라미터청소년협회 문화재 감사

겨울에도 따뜻하고! 여름에도 시원한! 사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 네추럴 삼베 수제 카페트

- 원산·제조 : 한국
- 크기 : 가로 280× 세로 180 × 두께 약 1cm
-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등
- 가격 :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 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드기, 곰팡이 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 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 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 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 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 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 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선의 비투과성

■ 삼베 매트 (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삼베 매트 (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60,000원** 차운전석 시트로 최적!

◇ 용도(공통) : 오가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상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이자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900원~~ (희담석합장주, 염주, 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희담석 100% 활용 방법** -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 번 정도 물에서 잠시(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물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물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 능인로즈마리·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향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이 오일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로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g